

서 평

김수진. 2001.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서울: 백산서당.

유럽의 계급 정치 변화를 평가하는 상이한 시각

강원택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1. 서론

유럽 지역은 최근 들어 통합의 심화, 확대와 함께 국제정치·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관심의 수준은 유럽 지역에서의 괄목할 만한 변화에 상응하는 만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비교해 보면 연구자의 규모나 사회적 관심의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주변 4강에 비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호관계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와 함께 유럽 지역에 대한 연구는 유럽이 근대의 발생지로서 획득하게 된 보편성(조홍식, 1998: 211)과 관련한 인식론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 지역에 대한 연구가, 특히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학계의 관심의 폭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을 전공하는 학자의 수도 증가하였고, 연구 성과도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유럽 지역 연구는, 적어도 정치학의 경우에는 대상 국가에 있어서나 주제에 있어서 매우 선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인다(강원택, 2001). 국가별로 볼 때,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은 학문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분

석 대상도 특정 한 두 국가(혹은 초국가로서 유럽연합)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온 반면, 이념, 종교, 정당체계 등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동일한 분석틀 속에 포괄하여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수진 교수의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는 기존의 연구 경향과 구분되는 매우 예외적인 저작이다. 이 책은 근대의 정치적 갈등의 핵심인 계급정치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유럽의 정치적 변화와 발전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주요 대국들 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까지 포함하는 서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접근법에 있어서 그 동안 우리의 유럽 지역 연구가 지녀온 지역, 주제의 한계를 넘는 시도라는 점에서 우선 높게 평가할 만하다. 주제에 따라 개별 국가에 관한 연구, 인접 국가간의 비교, 유사한 특성을 지닌 몇몇 국가의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다. 이 책은 비교사적인 접근을 통해 유럽에서 근대성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그 역사적 진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탈근대를 향한 역사적 전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계급정치를 둘러싼 변화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저자의 견해와 상이한 시각도 가능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서유럽에서 계급정치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이 책에 대해 평하고자 한다.

II. 유럽 정치에서의 계급

『민주주의와 계급정치』에서 이 책을 꿰뚫는 일관된 주제는, 책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계급 정치이다. 이 책은 서유럽에서 정치 세력으로서의 노동 계급의 등장, 노동 계급 정당의 결성, 사회주의 정당의 집권, 국가와 노동의 관계 등 서유럽 국가에서의 계급 정치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근대 정치, 특히 유럽의 근대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적 단위가 계급이라는 데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노동계급의 등장과 정치세력화, 그리고 물질적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다툼이 근대의 정치적 특성을 규정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특히 이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등장 배경과 역사적 원인, 발전 과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계급 정치는 지난 한 세기 동안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서유럽 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갖는다. 1970년대 이래 유럽에서 적지 않

은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이 말한 정치 균열의 ‘동결(freezing)’은 상당한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실정치에서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서 집권하고 있으며 이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대체 정치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메이어는 서유럽 지역에서 나타난 계급 정치적 변화(예컨대 선거에서의 유동성 증가 등)는 기존의 균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블록(예를 들면, 좌파 혹은 우파 블록)내에서의 변화일 뿐이며 그것이 기존의 대규모 정당들이 계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주장한다(Mair, 1997: 76-90). 이와 유사하게 크루는 영국 선거에서 계급은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정당 선택의 요인으로 유지되고 있다(the single most important social factor underlying the vote)고 보았다(Crewe, 1993: 100). 다시 말해 계급은 한 사회 내 다른 여러 가지 균열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급은 유럽의 정당 정치, 선거정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계급정치에 주목한 이 책이 오늘날의 유럽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앞서 지적한 대로 매우 폭넓은 시각에서 유럽의 계급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대상이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도 함께 살피고 있다. 또한 노동 계급이 정치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각국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나 지배정당체제의 변화, 코포라티즘을 포함한 국가, 노동, 자본간의 관계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각국의 정치체제 속에 계급정당이 차지하는 위치나 영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정치체제의 특성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계급정치의 변화 추이가 주요하게 다뤄지고는 있지만,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소 애매해 보인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저자의 주된 관심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서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는 ‘탈근대적’ 정치 현상, 예컨대 정당 당원 수의 급감, 정당 일체감의 약화와 같은 기존 정당 구조의 약화, 또한 선거에서 기존 정당 지지 구조의 변화(dealignment)라든지, 녹색당이나 지역주의 정당, 혹은 인종주의 정당과 같은 비계급 정당의 부상 등은 서유럽의 계급정치와 구분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이다.

따라서 계급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계급 정치의 변화를 이끈 요인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 물론 저자는 이 책 속에 사회민주주의의 쇠퇴의 문제나 (이탈리아에서) 제 3의 길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뤄지는 변인은 대체로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정치경제구조의 변화, 즉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쇠퇴 등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이 유럽 정치를 분석하는 단위로서의 적실성이나 중요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상적으로 나

타나는 변화의 기반이 되는 미시적 수준, 다시 말해 계급성, 연대감, 정당 일체감의 약화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바르톨리니와 메이어는 선거에서 기존 계급정당에 대한 지지의 유동성 증가가 기존 사회적 균열 구조의 폐쇄성이 약화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잉글하트는 그러한 변화가 계급 정치를 낳았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나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같은 탈근대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Bartolini and Mair, 1990; Inglehart, 1977).

이 책에서는 이런 시각을 ‘통계적, 추상적 논의들이 지니는 비역사성과 분석적 공허함’(p.179)으로 비판하였지만, 노동 계급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간과한 채,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만 주목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비판은 가능해 보인다. 특히 역사적, 경제사회적, 정치제도적 맥락이 상이한 여러 국가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설명하는 비교정치적 접근법에서 미시적 요인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우, 논의가 단순화되거나 추상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즉, 형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변화를 이끈 구체적인 동력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시민주의가 전반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계급 구성이나 사회경제적 변화와 같은 하부 단위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커다란 변화의 경향 속에 나타나는 각국별 변화의 차이를 간과할 수도 있다. 예컨대, 오늘날 프랑스 사회당 정부와 영국 노동당 정부가 보여주는 정책 기조의 차이는 흥미로운 것이다. 전반적인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쇠퇴라는 경향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영국 노동당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데 비해 프랑스 사회당은 여전히 전통적 입장을 대체로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조, 외부 상황의 변화 등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보다는 미시적인 분석의 틀이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III. 시민주의의 퇴조 혹은 변화?

오늘날 서유럽 정치에서 시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말은 적어도 현상적으로 볼 때는 수용하기 어렵다. 앞서 지적한 대로,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좌파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서유럽 정치에서 좌파 정치 세력, 혹은 시민주의가 약화, 혹은 퇴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심지어 공산당의 해체와 사민당의 붕괴를 겪은 이태리에서도 최근까지 좌파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자는 ‘서유럽 사회주의는 명백히 퇴조하고 있다’(p. 206)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시민주의의 약화, 정통적 시민주의

정책의 회피 등에 대해 저자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예컨대, 저자는 최근까지 집권해 온 이탈리아의 좌파 올리브나무 연립정부는 ‘바로 사회주의가 침몰한 폐허 위에 구축되어 있다. 이 나무의 자양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이다’(p.210)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탈리아의 좌파민주당은 ‘결코’ 이탈리아 사회주의 운동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으며 연속보다는 단절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주장한다(p.235).

그런 점에서 볼 때 저자는 ‘전통적인’ 계급 정치, 다시 말해 한 세기 전 노동운동이 처음 정치 세력화되었을 때의 이념적 순수성과 정치적 목표를 가진 노동계급의 정치 운동으로부터의 변화, 이탈을 ‘쇠퇴’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전통주의자들, 비유하자면 영국의 경우 구 노동당(Old Labour)의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의 계급 정치의 등장부터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핀 저자의 오랜 학문적 관심을 고려할 때 저자의 입장에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현재 서유럽 정치에서 생겨나고 있는 변화를 현상 그대로 보기보다는 규범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계급 정치의 출현과 발전을 이끌어 온 요인이 변화된 상황에서 정당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자가 지배정당체제가 특정 사회경제적 국면에 대응한 정치적 창조행위(political crafting)(p.120)로 바라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민주의 정당들의 변화를 그렇게 수용할 수는 없을까?

저자는 대부분의 사회민주당들이 탈케인즈적 정책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 채 사실상 신보수주의의 공세에 대한 효과적인 정치적, 정책적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p.206). 그러나 사실 현실 정치에 있어서 정당이 집권할 수 없다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토니 블레어가 영국 노동당을 신노동당(New Labour)라는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띤 정당으로 변모 시키기까지는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네 차례 연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18년 동안 야당 신세에 머물러야 했던 시절의 정치적 절박함이 존재하였다. 1979년 대치 등장 이후 노동당의 당권을 잡은 마이클 푸트(Michael Foot)는 전통적인 좌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지만 노동당은 그의 지도 하에 치러진 1983년 선거에서 1945년 이래 최저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말았다. 1992년 선거 패배 이후에는 앞으로 다시는 집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노동당 내부에 만연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블레어가 추진한 당의 변화는 정당으로 생존하고 집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영국 노동당의 재집권은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절대적 순수성은 약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유권자의 다수가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거 근대의 정치적 갈등에 기초하였던 시민주의 정당이 이념적 순수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자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와 함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다(p.207).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를 절대적인 가치의 추구로 간주할 것이냐 혹은 큰 흐름 속에서 상대적인 위치에 주목할 것인가에 따라 사민주주의의 쇠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립셋과 로칸 그리고 메이어가 주장하듯이, 여러 가지의 현상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의 정치에서 기존의 좌-우 정당 경쟁 구도가 '동결'되어 있거나, 혹은 좌-우 양 블록의 구도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한다면, 사민주의 정당들은 그러한 정당체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의 사민주의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기보다는 이념적 스펙트럼상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 이념적 위치를 상대적으로 변화해 온 것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매우 논쟁적인 것이다. 오히려 이는 연구자간 가치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지 본질의 진위를 구분해 내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정치에서 변화에 대한 수용, 적응은 언제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1945년 이후 서유럽의 보수주의 정당들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정치적 입장과 관련해서 본다면 '쇠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용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보수주의 정당들은 30여 년이 지난 후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우파적 흐름을 만들어 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우파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변화에 대응해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것이 과거와 비교해서 볼 때 원칙과 이념적 순수성의 쇠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거친 물결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정당들의 '정치적 창조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 론

한 주제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천착한 이러한 역작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비교 접근 방식은 특정한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 조건과 원인의 유사함과 차이점에 주목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역사적 경험을 비교사적 접근을 통해 우리에게 유럽 정치의 한 중요한 특성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

이 책은 또한 서유럽의 사민주의뿐만 아니라 서유럽 정당 체계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근대 이래 유럽 정당체계의 주축은 결국 이념 균열 구조에 의한 계급 정치적 갈등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자주 논의되는 유럽 정당체계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계급정치 구조의 변화나 약

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민주의와 관련된 이론적, 역사적 논의뿐만 아니라 계급정당 지지의 약화와 비계급 정당의 등장 등 최근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서구 정당체계의 변화를 일관된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유럽의 경험에 대한 이와 같이 깊이 있는 분석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된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노동 운동의 성장과 정치세력화의 시도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계급정치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향후 논의에서 서유럽 사민주의의 등장, 발전,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이 책의 연구 성과를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족처럼 한마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처럼 방대한 논의 속에 우리나라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참조나 인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모두(冒頭)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는 그동안 우리 정치학계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뤄놓은 주목할 만한 연구의 성과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활발한 학문적 활동과 그로 인한 변화에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보여 주었듯이, 역사적인 변화는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이어지며, 학문적인 성장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 강원택. 2001. 「서유럽 지역 연구의 동향: 정치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의 방법과 대상의 새로운 모색』. 세계지역학회 하계학술회의. 한국의국어대학교.
- 김수진, 강원택, 구갑우. 2000. 「서구 정치 연구의 현황과 과제」. 『21세기비교정치학』. 한국정치학회 편. pp.43-62.
- 조홍식. 1998. 「유럽연합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09-46.
- Bartolini, Stefano and Peter Mair. 1990. *Identity, Competition and Electoral Availability: The Stabilisation of European Electorates, 1885-198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ewe, Ivor. 1993. "Voting and Electorate." in Dunleavy et al. *Development in British Politics 4*. London: Macmillan. pp. 92-122.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ir, Peter. 1997. *Party System Change: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pset S. Martin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Lipset and Rokkan(eds.). *Party System and Voter Alignment: Cros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The Free Press.

강원택.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1 사회관 108호.
 Tel:(02)820-0526(O). E-mail: kangwt@saint.ssu.ac.kr